

2023년 8월 20일(주일) 제1644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회 축제"

2023.09.22(금)-23(토)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회 축제"를 9.22(금)-23(토)에 개최합니다.

2023서울교회 바자회는 작년과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바자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에 많이 참여하여 바자가 열리는 동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지인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웃의 등대되고 나침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3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 성경대학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에스라·느헤미야	화, 오전10:30-12:00	9.5-10.31(8주)	최중국 전도사	602호
신약의 파노라마	금, 오전10:30-12:00	9.8-11.3(8주)	장석남 목사	603호

### \* 열린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9.10-11.12(10주)	강남희 전도사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9.7-11.9(10주)	박미라 전도사	101호

### \* 전도훈련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전도폭발훈련	수, 오후 2:30-4:30	9.6-11.22(12주)	장석남 목사	603호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8월 27일(주일) 찬양예배 시간



홍동완 목사  
(도심리교회 담임목사)

다음 주 8월 27일 찬양예배 시간은 전도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흥천 도심리교회의 홍동완 담임목사님이십니다.

모든 전도위원들의 참석 바랍니다.

### 영동시찰회

8월 24일(목) 오전 10시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제73회 정기회를 위한 영동시찰회가 8월 24일(목)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영동시찰회 소속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가 모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는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회원 : 손달익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장로총대 : 이계홍 최형열 차영도 서은석  
김승록 이민호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구민우 최건 허정 이우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김예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벤엘로 가야합니다

(창 35:1-5)



손달익 위임목사

신앙인에게 그릇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을 형성시켜준 모태이며 오늘과 미래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익숙했지만 잘못되었던 이상숭배라는 과거와 과감한 결별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과거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화려하고 긍지 높았던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과격적인 자기 파괴를

통해 '오직 예수'라는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의 야곱도 과격적 혁신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와 갈등을 시작으로 고향을 떠나며 시작되었던 온갖 삶의 고난, 사건과 사고 가운데 온 가문이 몰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을 혁신하라고 하셨습니다.

## 1. 벤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과거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에 살고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던 길에 밤이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동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 28:20-22)라고 눈물겹게 서원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살면서도 1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벤엘에서의 예배를 실천하지 못했고, 예배 없는 가나안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그 지역 여러 부족 연합군의 공격으로 몰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벤엘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시며 그 무엇보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 회복을 이렇게 시급하고도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예배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직접적인 최고의 경배와 섬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 표현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밧단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불가능했던 그에게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얻으므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삶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배 없는 단일한 삶, 예배 없는 부유함, 예배 없는 안전, 예배 없는 즐거움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예배자가 되어 그 삶을 혁신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회복의 삶이 선행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거룩한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으로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 2. 예배자의 준비

예배 약속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벤엘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3절) 그러면서 떠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지시합니다.(2

절) 예배자가 어떻게 우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5절)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막 7:16)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면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성찰과 회개라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냉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허물을 깨닫고 진실하고 통절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신상들과 미신적인 물건들을 땅에 묻고 벤엘에서의 예배를 향해 출발하듯 우리를 악하고 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깊이 못 박아 버리고 정직한 성찰과 진정한 회개로 눈보다 더 회개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 정결한 예배자가 되면 내일이 있게 되고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 3. 회복되는 언약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벤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야곱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야곱이 계승하게 하시고 30년 전 야곱이 피난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 잘 때 나타나셔서 하였던 축복 언약을 지키시므로 그를 완전한 언약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원숙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품격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신앙과 비신앙의 중간지대를 걸으면서 늘 위험하고 불안정한 모습의 삶을 살았으나 예배를 회복한 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위엄찬 원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른 예배가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완전한 새 피조물로 혁신되게 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생활의 구조를 혁신하므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얻으므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 신약의 파노라마



장석남 목사  
(신약의 파노라마 지도 교역자)



\* 시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다락방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금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제까지 잘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부

신약의 파노라마는 신약성경의 주요 사건과 이유, 인물을 지리적 배경과 함께 성경의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약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개관 프로그램입니다.

본인 구약과 신약 중간에 위치한 400년 침묵기의 내용을 배우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기원과 성장에 따른 고통을 다시 체험하고 바울과 더불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함께하여,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의 거대한 숲이 어느새 거대한 파노라마가 되어 생생하게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성경 이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통한 회복의 위로



최중국 전도사  
(에스라·느헤미야 지도 교역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BC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에스라, 느헤미야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에스라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회복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주변 민족의 방해에 절망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를 넘어 경제, 사회, 우리나라 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살펴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탐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움', 느헤미야

2학기 성경 강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말씀에 등장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며 나의 개인적인 문

## 평생교육을 통한 천국시민의 삶, 살롬경로대학



박미라 전도사  
(살롬경로대학 지도 교역자)

살롬살롬~  
어르신들의 삶에 평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23년 가을학기 살롬경로대학이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개강합니다. 오실 어르신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어르신들~

- ☞ 인생의 실버세대를 선교의 골드세대로 소망하는 어르신들~
- ☞ 평생교육을 통하여 천국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어르신들~
- ☞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어르신들~
- ☞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적응력 향상을 원하시는 어르신들~
- ☞ 특별활동을 통하여 노년의 삶이 윤택하길 원하시는 어르신들~
- ☞ 야외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으

신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신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1. 교육시간: 2023년 9월 7일-11월 9일 (매주 목요일 10주간)
2. 장소: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홀 (101호), 오전 10시 30분
3. 대상: 65세 이상  
서울교회 및 이웃 어르신
3. 접수: 소정의 입학원서 (사무국 접수)



살롬경로대학 활동 모습

## 유아들의 인지·감각·영성의 성장



강남희 전도사  
(아기학교  
지도 교역자)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름 동안 단단해진 유아들의 신앙이 가을 동안 잘 열매 맺도록 돕고자 아기학교가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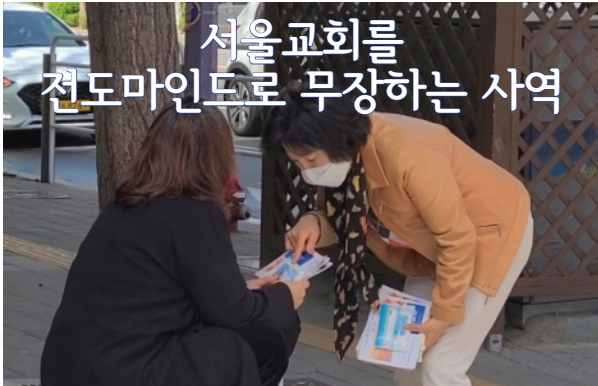
가을 아기학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원목 교구를 통하여 배웁니다. 원목 교구를 통하여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교구를 만지고 체험하며 아브라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아브라함 이야기를 주제

에 따른 오감 활동들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배우고 체화하게 됩니다.

센싱 교구를 활용한 아기학교를 통하여 인지, 감각, 영성의 성장을 희망하는 유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기학교는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3세부터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소수정예로 운영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대상: 3-7세 어린이
- 장소: 유아부실(706호)
- 교육 기간: 9월 10일 주일부터 10주간



### 장석남 목사 (전도폭발훈련 지도교역자)

모든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폭발훈련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자훈련으로서 친교,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 성장이란 사명아래 현재 211개국에서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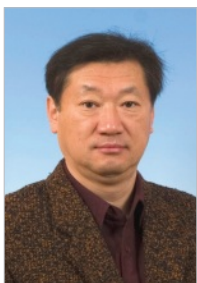
서울교회 전도폭발 1기 훈련이 4명의 훈련생으로 구성되어 가을에 시작됩니다. 이번 1기 훈련은 사역모델 준비 단계이므로 훈련생 모집은 2024년 봄 학기에 시행할 2기 훈련부터 합니다.

작게(small), 천천히(slow), 그러나 강하게(strong) 서울교회를 전도마인드로 무장하는 사역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0인전도대와 선교회, 전도회의 노방전도

## 예술가의 조형 세계를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홍창훈 안수집사  
(스데반회 회장)

이번 스테반회에서는 서울교회 전교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옛 고서로 쓰인 전통 한지를 소재로 활용하여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조형미술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하시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반열에 오르신 전 광영 은퇴안수집사님의 특강이 9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서울교회 웨민홀에서 열립니다.

집사님께서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국내활동을 하시던 중

보다 넓은 세계에서 작가의 꿈을 실현하고자 미국의 명문대학인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수많은 작품 전시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세계적인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대 한국작가 관람객 중 최다인 10만여 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명성이 높고 계시며 중요 도시 컬렉터의 관

심으로 미술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시며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오는 10월 중 중국 베이징의 탕 컨템퍼러리 화랑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술가로서의 각고의 노력과 온갖 고뇌의 투쟁을 통해 이룩하신 집사님의 조형예술의 세계를 들어 볼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3.1운동과 기독교 (I) - 3.1운동의 원인



서춘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모습(왼쪽)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 현장의 모습(오른쪽)



최팔용



현지인들과 함께한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된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 대표단 - 앞줄 오른쪽 끝 김규식, 왼쪽 끝 여운홍, 뒷줄 왼쪽에서 둘째 이관용, 셋째 조소앙(왼쪽)과 1919년 12월 상해에서 간행된 '신한청년'창간호(오른쪽)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3.1운동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우리나라’의 출발점이다. 일제에 강제병합되기 직전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이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글자 하나가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그 뜻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황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위대한 선언이다. 5천 년 만에 처음,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이다.

흔히 3.1운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으로 촉발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잘 알다시피 3.1운동 한 달 전 일본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 2.8독립선언의 주역 중 한명인 서춘의 발언은 당시의 한국인이 민족자결주의 하나만을 믿고 독립을 꿈꾸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만일 미국의 주제가 참으로  
정의 인도, 자유 평등한 것이라면  
무슨 이유도 필리핀을 독립시키지 않느냐.”

...  
오늘날 우리 청년들중에는  
미국 대통령의 연언을 존중하며  
민족자결주의, 정의 인도, 자유 평등을 말하며  
독의양양하기도 하나  
이보다 더 심한 잘못은 없은 것

...  
국가로서 단체로서 실력이 없다면  
하등 이득이 없는 말이다.”

서춘의 이 발언은 당시 세계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었다. 당시 서구는 1차 세계대

전의 결과인 이른바 ‘베르사유 체제’라는 변화된 세계질서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계질서가 말하는 민족자결의 권리는 강대국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말로는 모든 민족에게 자결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이상은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식민국의 독립도 마찬가지였다.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는 독립되거나 승전국에 이양되었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승전국의 일원인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면 당시 한국인들은 어떤 희망과 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였을까. 2.8독립선언의 리더인 최팔용은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여기에서 ‘썩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옳은 일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할 때 후세에 계속 기억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제2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왜 조선이 독립하여야 하는가.’ 2.8독립선언의 청년들은 다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고 옳은 일을 위해 죽을 때 썩지 않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여겼다.

1919년 5월 발표된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의 3.1운동에 관한 보고서’(The Korean Situation) 역시 3.1운동이 민족자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보고서는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민족자결주의나 고종의 사망이 아니라 다음의 12가지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1)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갈망 (2) 일제의 엄한 군정과 횡포 (3) 민족성 말살의 기도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의 한국인 배제 및 차별 (5) 임금·교육·법 적용에서의 한국인 차별대우 (6)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7) 종교의 자유 제한 (8) 한국인의 해외여행과 유학 금지 (9) 비옥한 토지의 약탈 (10) 공창제도 및 마약 방임 등 한국 청년의 비도덕화와 퇴폐풍조 조장 (11) 만주에의 한국인 강제 이민 (12) 일본인을 위한 개선과 한국인에 대한 착취” 등

요약하자면 당시 한국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독립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구한말부터 근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펼친 이래 독립협회, 상동청년회, 신민회(105인 사건), 신한청년당으로 민족운동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민족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중 하나였는데 이는 꽤나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대부분의 식민지가 기독교 국가인 서구의 지배를 받은 반면 우리는 기독교 선교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제국주의 침략국(일본)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18년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은 대한독립·사회개조·세계대동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주요인사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신한청년당은 2.8독립선언을 촉진하고 국내 기독교 인사들에게 세계정세의 현황과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종전과 맞물려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질서의 전면에 등장하자 한국인들은 이 변화의 조짐을 놓치지 않았다. 더구나 기독교인에게 자주(自主)와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이 성서에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본이었다.(이사야 65:17-25) 한국교회에 카이로스(καίρος,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식사 제공**

- 양춘경 은퇴장로·이인숙 은퇴권사 가정 (손자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 에너지 절약 및 청결**

계속되는 더위로 주일에 교회 전체 냉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간혹 부서에서 개별 냉방기를 켜두고 퇴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실 시 부서별 냉방기와 전등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에너지(자원) 절약을 위해 실천할 사항으로 냉방기 가동 시 출입문 닫기, 엘리베이터 타기보다 계단 걷기, 전기 절약을 위해 전

등 하나 끄기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홀)에서 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물 섭취는 꼭 8층 만나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프로그램 여름학기 프로그램**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최명아 선생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토 12:00-(120분)	5주	701	박재현 배우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극)	주일	10:00-	10회	505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8월21일	월	렘 39-42		8월21일	월	왕상 1-4	
8월22일	화	렘 43-47		8월22일	화	왕상 5-9	
8월23일	수	렘 48-49		8월23일	수	왕상 10-14	
8월24일	목	렘 50-51		8월24일	목	왕상 15-20	
8월25일	금	렘 52, 애 1-2		8월25일	금	왕상 21-22, 왕하 1-4	
8월26일	토	애 3-5		8월26일	토	왕하 5-9	
8월27일	주일	겔 1-4		8월27일	주일	왕하 10-16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실천으로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 다시 시작(Restart)하게 하신 서울교회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경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 이 한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보살펴 주시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명열
- 차도훈 이강인 차명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